제1541호 연중 제27주일 | 2019. 10. 6

절두산순교성지
Jeoldusan martyrs' shrine

주임신부 | 원종현(야고보)
수 녀 원 | 도레지나 · 공헬레나
(04085)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6 (합정동)
사 무 실 02-3142-4434, 2126-2200
순례예약 02-3142-4504, 4505
부활의집 02-3142-4827 Fax 02-336-6305
www.jeoldusan.or.kr

◈ 10월 순교자 현양미사

매주 화요일 미사는 순교자 현양을 위한 미사로 봉헌합니다.
첫 화요일은 이 땅에서 순교하신 모든 신앙 선조들을 위한 현양미사로 봉헌되고, 2~4주 화요일은 특별히 절두산에서 순교하신 '하느님의 종 13위'의 시복을 기원하는 현양미사로 봉헌하오니 순례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.

10월	8일(화)	하느님의 종 김큰아기(마리아)
	15일(화)	하느님의 종 이기주(바오로)
	22일(화)	하느님의 종 이용래(아우구스티노)
	29일(화)	하느님의 종 박성운(바오로)

◈ 평일미사 오르간 반주자 모집

▸절두산순교성지에서 아름다운 전례를 위해 성실하게 오르간 반주 본사를 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.
▸모집대상: 매주 봉사 가능하신 분(60세 이하)
▸신청방법: 성지 사무실에서 신청서 작성

◈ 청년복사단(타르시치오) 단원 모집

절두산순교성지 청년복사단 '타르시치오'에서 신규단원을 모집합니다. 절두산순교성지는 한국 천주교회 순교의 현장으로서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이 진리를 증거한 가톨릭교회의 대표적인 성지입니다. 경험여부와 관계없이 성지를 사랑하고 열정가득한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▸문 의 : 단장 010-3172-1032
총무 010-9443-4540

미사 및 전례 안내		
평일미사	월 / 토 오전 10시 화 ~ 금 오전 10시 • 오후 3시	
주일미사	토요일 오후3시 / 주일 오전 10시 • 오후3시	
절두산순교자현양미사	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• 오후 3시	
한국순교자현양미사	첫 화요일 오전 10시 •오후 3시	11월5일
성지후원회원미사 성모신심미사	첫 토요일 오전 10시	11월2일
부활의집 연령미사	첫 목요일 오전 11시 30분	11월7일
성체현시•성체강복	첫 목요일 오후 3시 미사 후	11월7일
로사리오회 기도 및 미사	첫 금요일 오전 11시 30분	11월1일
마리아연령회 기도 및 미사	마지막 금요일 오전 11시 30분	10월25일
상설고해	매주 토요일 12시 ~ 14시	

성가	입당	봉헌	성체	파견
	28	221 · 220	499 · 501 · 504	271

◈ 한국순교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는 <103일 기도>

절두산순교성지에서는 한국 순교성인들의 생애를 기억하면서, 그분들께 전구(轉求)를 청하는 **103일 기도**를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어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
▸방 법 : **11월 13일(수) 까지** 오전 10시, 오후 3시 미사
15분 전부터 시작, 미사 후 묵주기도
▸지 향 : **수험생을 위한 청원,**
가족들의 영육건강, 돌아가신 영혼 등을 위하여
▸준비물 : 매일미사 책, 103일 기도서, 묵주
▸미사예물 봉헌은 성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.
▸103일 기도서는 성지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.

◈ 절두산순교성지 야외유물과 성물①
종려나무(팔마)를 든 <예수상>



이 조각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최봉자(레지나) 수녀의 2001년 작품입니다.
종려나무(Palm)는 전통적으로 로마인들 사이에서 승리의 상징으로 통합니다. 이 의미가 그리스도교의 상징으로 전해온 것으로, 곧 종려나무 가지는 죽음을 통해 순교자가 이뤄낸 승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순교자들의 수난도구에 더하여 그려지거나 혹은 그 장소에 그려지기도 하였습니다. 그리스도께서 종종 죄와 죽음을 넘어 이룬 승리의 상징으로 팔마 가지를 지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,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(요한12:12~13)
종려나무로 만든 지팡이는 성 크리스토퍼(St. Christopher)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는 순례자나 여행자들이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어린 아이를 태웠는데, 등에 업힌 아이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답니다. 이에 그 아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며, 자신이 무거웠던 이유는 세상의 피조물들의 무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해집니다.

◈ 우리들의 정성 (9/23 ~ 9/29)

주일헌금(연중 제26주일)	7,063,000
순례자 봉헌함	1,209,700
감사헌금	750,000
김스테파노 100,000 염요셉 500,000 최바울리나 100,000 신비야 50,000	

절두산 순교성지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며 영광입니다.